

中古漁船의 輸入現況과 方向

水産廳 施設局 漁船課

造船技佐 李 存 陽

1. 序 言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天惠的인 立地條件과 豊富한 魚族資源을 가지고 있으면서 60年代 初期까지만 하여도 大部分이 小型無動力 船으로서 零細性을 띤 小規模勞動集約的인 漁業을 營爲하여 왔으나 第1,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依한 第1次産業인 水産業의 開發을 爲하여 重點的으로 支援施策을 見 結果 生産手段인 漁船의 船幅이 劃期的으로 擴充 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型化 되었다.

또한 1965年度 韓·日 國交正常化에 따른 韓·日 共同規制水域에서의 日本漁船과의 操業 競爭力提高를 爲한 現代化된 大型漁船의 需給은 民間資本이 빈약한 水産業界의 特殊事情等 國內 與件을 考慮하여 初期投資가 적으면서 資本의 회입期間이 빠른 中古漁船의 導入을 許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1962年度에 遠洋漁船의 호시라 할 수 있는 참치漁船 2隻을 처음으로 印度洋에 出漁 시킨 以後 계속된 遠洋漁業의 伸張勢에 따라 漁船의 需要度가 크게 增大 되므로서 漁船需給上 漁船의 導入이 不可避하였다.

그러나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는 73年度 부터는 沿近海漁船과 遠洋漁船의 輸入을 新漁場, 新漁法開發과 外延漁場 擴大策으로 誘導하는 한便, 國內造船工業의 發展을 爲하여 漸次 國內建造方向으로 轉換하였으며, 더욱

이 73年末부터 始作된 國際 原資材 波動과 世界的인 資源自國主義 經向에 의한 200海里 經濟水域宣布(79.1.1 以後 現在까지 70여개국에 이룸)는 많은 원양어장을 喪失케 되었으며 沿近海漁業 亦是 資源의 限界性으로 漁業總數의 制限을 不可避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高油價, 高賃金 時代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어업경영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도록 어선의 업종별 적정규모의 수급 政策이 漁船의 導入에 優先하여 종합적으로 檢討하여야할 段階에 있었던 것이라 할것이다.

2. 漁船導入實績

年度別 漁船導入實績은 表 1~3과 같은바(備船包含) 業種別로 보면 67年度 부터 계속되는 遠洋漁業의 伸張勢에 따라 大部分이 遠洋漁船이며 其外 政府의 輸出振興策에 依한 活鮮魚運搬船과 外延漁場擴大策에 依한 大型機船底引網漁船, 旋網漁船等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또한 國內遠洋業體의 民間資本의 零細性에 따라 自己資本이 없어도 外國으로 부터의 備船形式에 依한 漁船導入이 增加하기 始作하여 70年度 初期부터는 正常貿易去來에 依한 輸入보다 備船導入이 많은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備船漁船의 增加는 遠洋業界의 他人資本 即 外國資本 構成比를 더욱 높게하여 外國의 大바이어들에게 漁獲物의 판매권을 獨占케한 結果가 되었다 하겠다.

1. 年度別 漁船輸入(備船) 實績

單位：隻數

區 分 \ 年 度 別	'65-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輸 入	172	126	53	75	80	130	109	202	190	138	116	153	31
備船(所有權取得付)	2	2	7	10	25	81	48	155	148	9	10	6	7

2. 年度別, 船種別 漁船導入 實績

년 도 별	합 계		원양어선		근해어선		활선어 운반선		교습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1961	3	218			3	218				
1962	43	3,268	7	945	36	2,323				
1963	15	1,514	1	359	14	1,155				
1964	9	709			9	709				
1965	68	5,549	3	814	65	4,735				
1966	34	5,879	9	3,916	25	1,963				
1967	126	23,284	65	16,854	61	6,430				
1968	53	16,380	23	13,576	30	2,804				
1969	75	12,421	25	7,949	50	4,472				
1970	80	19,176	70	18,212	10	964				
1971	130	35,157	83	31,404	47	3,753				
1972	109	40,728	88	38,103	14	1,649	7	973		
1973	202	54,950	128	47,345	40	5,551	34	2,054		
1974	190	61,620	81	52,328	76	9,197	33	2,095		
1975	138	15,117	57	7,622	57	5,949	24	1,546		
1976	116	12,543	2	329	90	9,252	24	2,962		
1977	52	10,760	5	3,183	18	1,964	27	3,387	2	2,226
1978	31	16,860	21	15,593	9	1,011	1	256		

3. '72~'78 업종별 어선 도입실적

單位 : 척수

년 도 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업 종 별							
계	109	202	190	138	116	52	31
원 양 어 선	88	128	81	57	2	5	21
기 저					2		4
가 나 랭 이		6	6				
참 치	57	68	28	4		4	2
스 탄 트 롤	25	14	14	3			12
새 우 트 롤		30	32	50			
냉 동 운 반 선						1	2
원 양 채 낚 기							1
기 타	6	10	1				
근 해 어 선	14	40	76	57	90	20	9
기 저	2	19	38		44		
선 망	12	13	20	15	30	18	
(본 선)					5	5	
(등 선)					15	7	
(운 반 선)					10	6	
채 낚 기		7	17	26	16		
계 통 발							9
기 타		1	1	16			
활선어 운반선	7	34	33	24	24	27 (교습선)	1

計劃造船 漁船 建造 實績

3. 漁船導入施策과 展望

政府는 國內 造船工業育成을 爲하여 76.8.7. 경제장관회의에서 計劃造船施行計劃을 確定 하므로서 '77~'81 期間中 總 5萬G/T의 漁船을 政府의 劃期的인 財政의 支援下에 國內建造토록 하였다.

그結果 종래 中古船(輸入)에 依存하여 漁業을 營爲하여 오면서 國內建造를 技術的으로 憂慮하고 漁業經營上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惰性を 拂拭하고 大型機船底引網漁船은 勿論 大型旋網漁船까지도 國內造船技術陣에 의거 建造한바 있으며 이 新造船들은 同種漁船中 上位圈의 生産實績을 舉揚하고 漁業經營改善, 良質의 水産擔백질의 공급과 水産物輸出增大 및 物價安定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關係機關 및 新造를 한 漁民의 努力의 結晶일 것이며 우리나라 漁船需給上 新造船으로 供給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함과 同時 造船工業의 育성과 水産業의 經營改善에 크게 寄與하게 될것으로 믿는다.

또한 79年度 第4次計劃造船은 總 120隻, 14,240G/T의 漁船을 老朽船代替코자 建造推進中에 있으며 이중에는 420G/T급의 원양참치어선 13隻도 包含되어 建造中에 있다.

따라서 漁船의 需給은 沿岸國의 200海里 經濟水城宣布에 따른 새로운 國際海洋秩序 時代에 부응한 해외어업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推進하기 위한 경우와 새로운 新 漁具, 漁法 開發을 爲한 一部業種의 漁船을 除外하고는 全漁

業 種	2 次		3 次		4 次	
	隻數	噸數	隻數	噸數	隻數	噸數
채 낚기兼業	124	9,600	20	1,600	1	80
大型機底	20	2,000	20	2,000	19	2,280
旋網	11	990	29	3,110	3	220
東海區 트롤	—	—	3	240	—	—
船引網	—	—	5	125	29	960
底引網	—	—	—	—	28	2,660
東海區機底	—	—	—	—	5	350
통발	—	—	—	—	19	1,520
活鮮魚運搬船	—	—	—	—	2	160
참치漁船	—	—	—	—	13	5,850
트롤 "	—	—	—	—	1	350
敎習船	—	—	1	150	—	—
計	155	12,590	78	7,225	120	14,430

船을 國內建造로서 需給하도록 支援施策이 推進 될것이며, 이로서 非經濟的인 老朽漁船을 代替토록 하고 漁船의 經費節減에 依한 經營合理化와 安全操業을 圖謀하며 水産資源의 持續的인 維持管理를 爲하여 적정규모의 어선 需給에 最善을 다함과 同時에 省力化等의 現代화된 漁船을 需給하여 우리나라 水産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當面 課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造船工業과 水産業의 育성과 適正管理를 爲하여는 外國으로부터의 中古漁船 導入은 前述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계속적으로 止揚 되어질 것이며 제도적으로 정착화 되어 될 것으로 전망된다.

